

맹강녀(孟姜女) 설화의 서사문학적 가치 재구

김 현 화*

차 례

- | | |
|---------------|----------------------|
| 1. 서론 | 3. 맹강녀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징 |
| 2. 전승 양상의 성격 | 1) 인물의 형상화와 곡(哭)의 연대 |
| 1) 구비 전승의 비장미 | 2) 연회적 서사 공간의 확대 |
| 2) 문헌 전승의 절제미 | 3) 낭만적 세계관의 해원의식 |
|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맹강녀 설화가 관(官)과 민(民)을 아우르며 2000년 간 유전해 올 수 있었던 서사문학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문헌 전승 기록과 구비 전승 기록의 차이점을 살펴, 전승 집단의 의식에 따라 캐릭터의 변이와 새로운 서사구조의 등장, 보다 명징해진 주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서사문학과 교섭 양상을 살폈다.

《좌전》에서부터 민을 교화하고 계몽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기랑 처 이야기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맹강녀 설화로 자리 잡는다. 연못 상봉과

* 충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초빙교수

적혈로 남편의 뼈를 찾는 새로운 화소가 추가되었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운 절제된 미덕이 강조되었다. 당대의 위정자는 그것을 여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당대 이후의 구비 전승 자료 가운데 8편을 채택해 민이 추구하던 서사적 비장미에 대해 살폈다. 민의 전승에서는 적강, 인신공희, 관탈민녀, 세 가지 조건, 지명전설, 인명전설, 이계, 밀고자, 변신담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화소들은 인물들의 절제된 이성보다는 솔직한 감정 상태를 살리고, 짜임새를 갖춘 서사 구조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비장한 주제의식을 발현한다.

맹강녀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질은 인물의 형상화 과정이 그녀의 곡(哭)과 연대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먼저 눈에 띈다. 이러한 곡의 형태가 한국의 고대시가 <공무도하가>와 <도미전>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 특질은 연희적 서사 공간의 확대란 점이다. 맹강녀 설화의 주요 공간 배경이 크게 세 가지, 곧 가택의 후원 연못에서 장성으로, 다시 바다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후원 연못은 두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서사무대로, 장성은 남편의 주점을 위안하고 위정자에 대한 정치를 하는 서사무대로, 바다는 설화 속 등장인물은 물론 민의 해원의식이 치러지는 서사공간으로 접근하였다.

후원 연못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적 서사무대로 《삼국유사》 <무왕>조를 살폈고, 장성 서사무대로는 《삼국사기》 <개로왕>조의 축성 상황과 전란 상황이 맹강녀 설화의 시대상황과 근접함을 고구하였다. 바다가 배경인 서사 무대로 <공무도하가>와 《삼국유사》에 산재한 바다에 관한 기록들, 고전소설 <최척전>과 희곡 작품 <만강홍>을 예로 들었다. 연희적 서사 공간의 확대는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자 했던 민의 비원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특질은 낭만적 세계관의 해원의식이란 측면이다. 맹강녀 설화

는 그녀의 죽음으로 비장미를 더한다. 맹강녀의 바다 투신은 이 설화에 의탁한 민의 원성을 풀어 주는 해원의식이다. 민은, 자신들의 현실적 불의를 풀어 준 그녀를 다시 낭만적 죽음의 세계로 돌려보낸다. 이후 출현한 현실적 열부 형의 여성들은 지고지순한 열녀형 인물이지만, 여전히 맹강녀와 도미 처의 맥을 잇는 낭만적 세계관 속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맹강녀, 기량, 중국 전설, 서사 문학, 서사 공간, 구비 전승, 문헌 전승

1. 서론

설화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우주 자연의 섭리, 개아와 세계의 갈등과 희원을 담아내며 그 문학적 존재성을 입증해 왔다. 이른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의 척도를 제시하며 문학의 한 영역을 지탱해 온 것이다. 비극적이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고, 때로 어수룩하고 회화적이거나 지 한 설화 속 군상을 통해 인간은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그만큼 설화가 삶의 다원성을 다루며 유희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시적 기능까지도 구현한 문학물이기 때문이다.

맹강녀 설화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2000여 년에 걸쳐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작품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맹강녀 설화는 <우렁각시> <양산백과 축영대> <백사전>과 아울러 중국 4대 전설 가운데 하나이다. 민(民)의 문학 속에서는 통속적이고 유희적인 속성으로, 관(官)의 문학 속에서는 이념적이고 교시적 속성으로 넘나들며 유전하였다. 맹강녀 설화는 위정자들의 정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듭 재구성되기도 하였고, 그 비극적이기도 숭고한, 게다가 낭만적이거나

지 한 서사와 캐릭터의 영향으로 연희, 창사 등 민중이 애호하는 속문화로서도 거듭 재구성되었다. 이것이 맹강녀 설화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서사적 변이와 교섭을 자연스럽게 호환하며 오랜 세월 유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국내 맹강녀 설화 연구에 있어 거개의 논자들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한 고희강(顧頡剛)¹⁾의 연구를 선편으로 삼았다. 역사적 인물인 기량(杞梁) 처와 전설적 인물인 맹강녀(孟姜女)의 상호 대비를 통해 설화의 발전 단계에서 보이는 소재의 증감과 내용의 변천을 살핀 논의²⁾는 설화 향유층의 세계관과 민간 문학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맹강녀 설화를 강창문학의 한 양식인 보권(寶卷)의 속성과 연결한 논의는 충효와 정절을 중시하던 봉건주의 분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³⁾ 기량 처의 미화된 죽음을 통해 고대 중국 여인의 열녀상을 정립함으로써 열녀라는 미명 하에 순절해야만 했던 왜곡된 시대상을 살핀 논의는⁴⁾ 당대의 여성상을 남성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고심해 보았다는 데 의미 있다.

맹강녀 설화와 국내 작품 간 비교 연구는 그 원형을 소급시켜 이루어졌다.⁵⁾ 맹강녀 설화의 원형인 기량 처 이야기와 후대 작품과의 비교 연

1) 고희강, 『맹강녀 이야기의 변천(孟姜女故事的轉變)』, 『맹강녀고사연구집(孟姜女故事研究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4.

2) 양윤정, 『맹강녀설화 연구』, 숙명여대 중어중문과 석사논문, 1989.

3) 김우석, 『보권에 대한 연구:소극적 대안으로서의 이단과 미신, 도피적 위안과 마취적 오락의 문학』, 『중국문학』 3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허윤정, 『맹강녀보권연구(孟姜女寶卷研究)』,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1. (허윤정은, 현재 맹강녀 설화는 티벳과 대만을 제외하고 약 1500여 종의 관련 텍스트가 수집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800종이고, 민간 가요와 창사가 약 700여 종이라고 했다. 나아가 맹강녀 설화가 공연 지향형의 강창문학을 만나 민간으로 보다 활발하게 전파된 측면을 부각했다.)

4) 조숙자, 『고대 여인의 죽음과 그 그림자-기량의 아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9집, 중국어문학회, 2002.

5) 맹강녀 설화와 중국 고전 서사물과의 비교 연구는 양윤정의 논문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주나라 『좌전』기록에서 시작된 기량 처 이야기가 맹강녀 설화로 변

구를 진행한 논의였다. 기량 처 이야기는 일찍이 《좌전》과 《예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전한 말기의 대학자였던 유향의 《열녀전》 <정순전>에 ‘제기량처(齊杞梁妻)’로 입전되면서 정절과 순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형화되었다. 이 책은 현대 이후부터 청 말에 이르는 장구한 유교적 여성관의 연원이 되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여성 교육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친 바,⁶⁾ 우리 서사문학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열부에 관한 최초 기록으로,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도미전(都彌傳)>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도미 처에 관한 열녀 전승적 성격 때문이다. 도미 처의 열행에 중점을 둔 논의는 고전 서사물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규범적 성격을 창조하는 데 집중했다.⁷⁾ 그래서 도미 처 이야기는 왕왕 기량 처 이야기와 비견되어 언급되었지만 이후 상세한 연구 상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도하가>의 배경 설화를, 기량 처의 배경 설화와 대비, 그 등장인물 간의 특질을 살핀 논의는⁸⁾ 이 설화의 변이와 교섭 양상을 살피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전한 뒤 청나라 말기까지 전기·변문·회곡 등의 변성에 활력을 주었음을 파악하였다.

- 6) 정재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7) 장덕순,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70.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장덕순선생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정상박, 『도미부부 설화 전승고』, 『어국문학』 8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강진욱, 『삼국 열녀전승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I』, 중앙문화사, 1995.
최운식,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2, 151-170쪽.
- 8) 이영태,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광부 처의 행동』, 『민족문화사연구』 33집,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110-128쪽.

지금까지 살펴 본 논의는 기량 처 이야기에서 맹강녀 이야기로 발전하는 과정에 일어난 소재나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였거나, 혹은 기량 처 이야기만을 가지고 타 작품과 연결지어 언급한 연구였다. 그런데 맹강녀 설화의 전통적 속성, 곧 구비 전승을 통한 서사의 변이와 개작, 그를 통한 여타의 문학 작품 간의 교섭 양상은 살피지 못한 듯하다. 맹강녀 설화는 2000여 년 동안 각 지역별로 유전하며 독특한 관점으로 구비 전승되었다. 문헌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허구적 사건의 개입은 물론, 한층 유기적으로 짜인 서사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맹강녀 설화는 이러한 변이 속에서 후대 문학 작품과 상통하는 서사문학적 위치를 획득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조선조 연행록 안에 실린 맹강녀 설화 기록 양상을 살핀 논의⁹⁾는 논자의 이해처럼 동아시아문화의 상호 교류와 이해, 전파와 수용, 새로운 가치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위에서 살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맹강녀 설화의 서사문학적 가치에 대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맹강녀 설화의 전승 양상이 구비물과 문헌물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내 여덟 지역의 구비 전승 자료에서 드러나는 비장미와, 기량 처 이야기가 맹강녀 설화로 전승되며 드러나는 문헌 전승의 절제미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전승 양상의 성격을 살필 것이다. III장에서

9) 김철, 『‘연행록’ 중의 맹강녀 전설 기록 양상 소고』, 『민족문화연구』 6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59쪽-161쪽 참조.(논자는 700년에 달하는 한중 교류사를 필기체로 담아 놓은 연행록 속에 나타난 맹강녀 전설 관련 이야기를 거론하며, 19세기 말까지 수많은 조선조 문인들이 이 전설과 관련한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조선조 연행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르게 맹강녀를 소개한 인물로 <표해기행록>을 쓴 최부를 거론하며, “세상에 전하기를 망부대(望夫臺)는 곧 진나라가 장성을 쌓을 적에 맹강녀가 남편을 찾았던 곳이라고 한다(出自關東城門, 門之上建東關樓, 門外有東關橋, 誇海子關外有望鄉臺, 望夫臺, 該傳望夫臺, 卽秦築城時, 孟姜女尋夫之處)”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아울러 연행록 안에 수용된 맹강녀 설화는 일기, 시, 잡록 등 총 250여 건이며, 그 중에 일기와 잡록이 166여 건, 시가 84수라고 부연했다.

는 맹강녀 설화가 관(官)과 민(民), 두 층위를 두루 포섭하며 유전해 올 수 있었던 서사문학적 특질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치 탐색에 주력할 것이다. 인물의 형상화와 곡(哭)의 연대, 연회적 서사 공간의 확대, 그리고 낭만적 세계관의 해원의식 등으로 나누어 그 특질을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질이 한국 서사문학과 교섭하며 나타난 양상에도 주목하기로 한다. 그런 가운데 고급에 이르도록 진정성을 갖는 한 편의 서사문학으로 자리하게 된 맹강녀 설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¹⁰⁾

2. 전승 양상의 성격

1) 구비 전승의 비장미

당대(唐代) 이후 맹강녀¹¹⁾ 이야기는 장성 축조와는 거리가 먼 강남 지역까지 전파되는데, 이때부터 이야기는 더욱 다채로운 면모를 띤다. 새로운 인물의 성격과 새로운 사건의 발생, 또한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장미 넘치는 결말이 부가되어 민초들의 현실을 긴장감 있게 반영한다. 구비 전승 자료로 여덟 지역의 맹강녀 설화를 채택하였다. 각 지역 별 맹강녀 설화의 지속과 변천을 보고 구비 전승 자료의 특색인 비장미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8편의 맹강녀 설화를 자료 별로 단락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 논문의 텍스트는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한 『중국민간고사집성』을 대상으로 한다. 8편의 자료에 대한 자세한 발행 사항은 본문 각주로 대신하기로 한다.

11) 기량의 처가 후대 맹강녀라는 이름으로 고정되는 것과 달리, 여덟 편의 구비 자료에서 보듯 그 남편의 이름은 만기량, 만희량, 범희량 등 다양하게 구전된다. 구비 자료에 따라 이 이름들을 그대로 혼용해 쓰기로 한다.

자료 [1]

- (1) 하늘의 선녀였던 맹강녀는 인간세계를 훑쳐본 죄로 땅으로 쫓겨나
다.
- (2) 맹강녀는 맹 씨와 강 씨 집 울타리 밖 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박
을 타자 어린 여자아이 모습으로 튀어나오다. 자식이 없던 맹 씨가
맹강녀를 거두다.
- (3) 처녀가 된 맹강녀는 ‘온 몸이 하얀 사람이 자신의 배필’이라고 부모
에게 말하다.
- (4) 당시 진시황은 부왕의 108 후궁 중 가장 어린 ‘애비’를 자신의 비로
들이고자, 옥황상제를 억박질러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하고, 다시 그
해를 가릴 장성을 쌓기 위해 11002명의 젊은 남자를 성벽 아래다 생
매장하려고 하다.
- (5) 옥황상제가 진시황의 꿈에 나타나 범家の 희량이란 자를 잡아 만천
량(万千良)¹²⁾을 대신하라고 이른다.
- (6) 범희량이 도주하다 맹강녀의 집 후원 연못에 빠지는데, 맹강녀가 그
의 흰 몸을 보고 자신의 배필임을 알다.
- (7) 두 사람이 혼인하는 날 ‘주갈’이란 자의 밀고로 범희량은 장성으로
끌려가다.
- (8) 맹강녀가 장성으로 찾아가 곡을 하자 성벽이 10리 씩 무너지다.
- (9) 진시황이 맹강녀의 미색에 빠져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 그녀는 세 가
지 조건을 요구하다. 첫째, 진시황이 용포 대신 흰 상복을 입고 조문
하러 와서 세 번 ‘아버지’라고 부를 것. 둘째, 범희량의 관을 이고 산
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 줄 것. 셋째, 맹강녀 자신도 상복을 입고 바
닷가로 가 세 번 울게 해 줄 것.
- (10) 진시황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자, 맹강녀는 범희량을 세 번 부르
며 바다로 뛰어들다.¹³⁾

12) 방언으로 범희량과 발음이 같은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일만일천의 사람을 대신
한다는 의미.

13) 『맹강녀』, 『중국민간고사집성』(절강권 주산시 정해구), 중국민간고사집성전국편
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3, 291-294쪽.

자료 [2]

- (1) 범희량은 맹강녀와 결혼하자마자 장성을 축조하러 와 죽다.
- (2) 맹강녀가 찾아와 곡을 하자 장성 800리가 무너져 내리며 범희량의 시신이 나오다.
- (3) 진시황이 맹강녀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 그녀는 진시황이 상복을 입고 남편의 장례를 치러 줄 것을 요구하다.
- (4) 진시황이 그 요구를 들어주자 맹강녀는 바다로 몸을 던지다.
- (5) 이에 진시황이 산편(山鞭)으로 바다를 후려쳐 용궁을 위태롭게 하다. 이에 용왕의 아홉째 딸이 맹강녀로 변신해 나타나 진시황의 후궁이 되다.
- (6) 진시황이 유력(出遊)을 나간 사이 용녀는 산편을 훔쳐 바다로 달아났는데, 용녀가 산편을 내리칠 때마다 장성이 바다 쪽으로 따라 달리다. 용녀는 바닷가에서 아이를 해산하고 용궁으로 돌아가다.
- (7) 바닷가에 버려진 아이에게 범이 와서 젖을 물리고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해를 가려준다. 항 씨 성을 가진 노인이 아이를 거두고 항우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그는 후에 서초의 폐왕이 되다.¹⁴⁾

자료 [3]

- (1) 범희량이 장성 축조에 끌려와 죽다.
- (2) 맹강녀가 곡을 하며 적혈로 남편의 뼈를 찾다.
- (3) 진시황이 맹강녀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하자, 그녀는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다. 첫째, 단항목 관에 남편의 뼈를 거둘 것. 둘째, 문무백관들이 남편의 장례에 참석할 것. 셋째, 맹강녀가 상복을 입고 강가에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게 해 줄 것.
- (4) 진시황이 이를 들어주자 맹강녀는 물 속으로 뛰어들다.
- (5) 맹강녀를 잃고 상사병에 빠진 진시황에게 절름발이가 찾아와 두 송이 꽃¹⁵⁾을 바치다.

14) 『맹강녀』, 『중국민간고사집성』(요녕권 수중현),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9, 133-137쪽.

15) 꽃망울이 부풀 꽃과 만개한 꽃.

- (6) 황후와 태후가 꽃을 머리에 꽂으니 맹강녀처럼 미색의 용모로 변하다. 진시황이 이성을 잃고 젊어진 모후를 귀빈으로 취하고자 하니, 황궁 성벽이 태양을 가리지 않고서는 아들이 어미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고 모후가 격노하다.
- (7) 이에 진시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편으로 하늘을 덮는 거대한 성을 쌓다.
- (8) 해가 반으로 가려지는 것을 보고 모후가 곡을 하자 성이 무너지다.
- (9) 진시황은 만조백관을 불 낮이 없어 천하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길을 나섰다 객사하다.
- (10) 꽃 두 송이는 바로 맹강녀가 변한 것으로, 남편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전하다.¹⁶⁾

자료 [4]

- (1) 맹 씨·강 씨 노파의 집 울타리 밖 속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튀어나오다. 두 노인은 아이를 키워 줄 허 씨 성을 가진 새어머니를 들이고, 허맹강이라 이름을 짓다.
- (2) 혼담이 오고가자, 맹강녀는 박 속에서부터 차고 나온 팔찌를 처음 보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다.
- (3) 범희량이 장성 축조 부역을 피해 도주하다 맹강녀의 집 후원으로 숨어들다. 마침 연못물에 손을 씻는 맹강녀의 팔찌를 보다.
- (4) 맹강녀와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범희량은 장성으로 끌려가다.
- (5) 맹강녀가 장성으로 찾아가 곡을 하자 성이 무너지며 백골이 나오다.
- (6) 맹강녀는 적혈로 남편의 뼈를 찾다.
- (7) 진시황이 맹강녀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하자,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다. 첫째, 금·은으로 된 덮개를 씌운 관을 마련해 줄 것. 둘째, 문무백관은 물론이요 진시황까지 장례 행렬에 참여해 줄 것. 셋째, 강변으로 가서 남편의 시신을 매장해 줄 것.
- (8) 진시황이 이를 들어주자 맹강녀는 강으로 뛰어들다.¹⁷⁾

16) 『맹강녀가 꽃으로 변해 남편의 복수를 갚은 이야기』, 『중국민간고사집성』(복건권 북정현),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8, 205-206쪽.

17) 『맹강녀』, 앞의 책, 2002, 261-263쪽.

자료 [5]

- (1) 맹장군과 맹강녀는 복중 애기혼사로 맺어져 15년 뒤 혼인을 하다.
- (2) 맹장군이 만리장성 축조 현장으로 끌려가다.
- (3) 맹강녀는 후원 연못에서 음산한 날씨 속에 맹장군이 홀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남편이 이미 死者가 되었음을 직감하다.
- (4) 맹강녀는 진시황에게 바칠 황룡포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검은 옷을 들고 황궁으로 떠나다.
- (5) 진시황이 맹강녀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하자, 그녀는 장성 아래 묻힌 남편의 주검을 찾아 복과 노래로 장례지내 주길 요구하다.
- (6) 맹강녀가 장성 아래 앉아 곡을 하니 성벽이 무너지며 백골이 나타난다.
- (7) 맹강녀가 적혈로 남편의 유골임을 확인하다.
- (8)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맹강녀는 남편의 유골을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든다.¹⁸⁾

자료 [6]

- (1) 효부인 란향녀는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자 북방지역으로 신선 약을 구하러 떠나다.
- (2) 절벽 위에서 요귀를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선 란향녀는 신선 약을 구하러 갈 수 없음을 한탄하다.
- (3) 발아래 있던 흰 바위가 말로 변해 란향녀를 태우고 일어난다. 란향녀가 나무막대기로 땅에 붙은 말 꼬리를 치자 백마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 꼬리는 산 정상으로 떨어져 만리장성 최초의 한 단이 되다.
- (4) 백마는 란향녀의 시어머니가 이미 완쾌되었음을 알리고 땅으로 떨어지다. 란향녀도 미련 없이 백마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다. 백마는 바위가 되고, 란향녀는 박씨가 되어 그 위로 떨어지다. 백마 꼬리에서 떨어진 피가 장성이 되었는데, 란향녀를 태우고 날아간 거리가 곧 장성의 길이가 되다.

18) 『맹강녀 전설』, 『중국민간고사집성』(산서권 양천시),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8, 188-189쪽.

- (5) 백 년 뒤 까치가 박씨를 물어 맹 씨와 강 씨 집 울타리 아래 떨어트렸는데, 박이 열리고 그 속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온다. 맹강녀라고 이름 짓다.
- (6) 후에 맹강녀가 남편을 찾아 장성 아래서 울자 성벽 800리가 무너졌는데, 이는 장성이 란향녀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다. 장성은 곧 란향녀를 태우고 날아가던 백마의 피가 떨어져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자료 [7]

- (1) 진시황은 만리장성이 거둬 무너지자 산 사람을 묻고 제사 지내기로 하다.
- (2) 일만 명을 대신하는 万 씨 성을 가진 만기량이 조정으로 잡혀오다.
- (3) 만기량의 아내 맹강녀가 황궁 앞에서 남편을 찾으려 곡하다
- (4) 진시황이 맹강녀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다. 첫째, 강변에 제단을 세우고 남편의 장례를 치러 줄 것. 둘째, 스님 72명을 모셔 시주하게 해 줄 것. 셋째, 진시황이 직접 제사를 지내 줄 것.
- (5) 진시황이 이를 들어주자 맹강녀는 물 속으로 뛰어든다.
- (6) 화가 난 진시황이 맹강녀의 시신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 물고기 밥으로 던지다. 토막 난 시체가 병어로 변했는데, 상복 때문에 흰색의 물고기가 되었고 잘게 찢긴 살이 꼭 국수 같아서 면어(面條)라고도 불리게 되다.²⁰⁾

자료 [8]

- (1) 범희량이 장성 부역장에서 일하다 도주하던 중 맹강녀의 집 후원으로 숨어들다.
- (2) 범희량은 계수나무 속에서 때마침 시녀들과 연못에서 목욕을 하던

19) 『맹강녀와 만리장성의 최초 한 단』, 『중국민간고사집성』(북경권 연경현), 중국 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5, 140-141쪽.

20) 『맹강녀와 병어』, 『중국민간고사집성』(강소권 남통시),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1998, 174-176쪽.

맹강녀를 흠쳐보다.

- (3) 눈치 빠른 시녀들이 죽대로 계수나무를 찢러 범희량을 땅으로 끌어 내리다.
- (4) 범희량은 장성 부역을 피해 도주한 사실을 밝히며 일부러 엿볼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다.
- (5) 맹강녀는 범희량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부모에게 간청해 혼인하다.
- (6) 후에 맹강녀는 범희량을 찾아 천리 길을 걸어가 곡을 했는데, 장성이 무너지고 범희량의 시신을 찾았다고 전하다.²¹⁾

민(民)의 구비 전승에서 교훈적 효용성과 아울러 재미와 감동이 배가된 서사로 발전한 것은 설화 전승 집단의 기대치에 부응한 결과이다. 민(民)의 기대치는 재미와 흥미에만 머물지 않고 맹강녀를 통해 현실에 포진한 부조리한 문제의 징계로 나아간다. 진시황과 장성 축조를 당대의 삶과 연결함으로써 민(民)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 그 한 예이다. ‘장성 축조 → 기량의 도주 → 기량과 맹중자의 연못 상봉 → 기량의 죽음 → 맹중자의 곡(哭) → 그로 인한 붕장성(崩長成) → 적혈’ 등의 화소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부터 확대 발전한 화소들을 보면 적강(신이한 탄생 포함), 인신공회²²⁾, 관탈민녀,²³⁾ 세 가지 조건, 지명 전설, 인물 전설, 이계, 밀고자, 변신담,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우선 두드러진 화소는 ‘적강 화소’이다. 적강 화소는 인간세계에서 별

21) 『맹강녀와 범희량』, 『중국민간고사집성』(호남권 레현),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2002, 260-262쪽.

22) 인신공회 사례를 살필 수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우선, 『심청전의 근원설화와 배경사상』, 『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 11집,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최윤식, 『인신공회설화 연구』, 『한국민속학보』 10집, 한국민속학회, 1999; 황인덕, 『에밀레종 전설의 근원과 전래』, 『어문연구』 56집, 어문연구학회, 2008.

23) 최래옥은 앞의 논문에서 官吏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담은 설화를 ‘관탈민녀형설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남자의 신분은 가장 높은 왕, 다음은 그 고을의 長인 원님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자는 미친한 백성으로 반드시 미색을 갖춘 조건으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관탈민녀형 고전 서사물을 비교 연구하였다.

어질 맹강녀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적강녀마저 어찌지 못하는 생이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현실세계이다. 그러니 범부의 삶 속에 든 생이별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비애가 표출된다. 적강은 아니지만 맹강녀가 박씨 속에서 태어나는 자료 [4]와 [6]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장치된 듯하다. 자료 [5]에서 맹강녀와 기량은 복중 혼사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배필로 맺어지지만 관(官)의 부당한 개입으로 생이별을 겪는다. 이처럼 신이한 출생은 생이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인신공희 화소’는 자료 [1]과 [7]에서 볼 수 있다. 범희량은 장성 축조의 인신공희 대상으로 잡혀 오는데, 11002명 혹은 10000명을 대신할 목숨이기 때문이다. 이는 《좌전》이나 《열녀전》의 기량이 충(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과 사뭇 다른 점이다. 구비 전승 자료 속의 기량은 오히려 관(官)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인신공희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량은 자신이 인신공희로 바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자 왕의 명을 거스르고 도주까지 한다. 비록 자신의 죽음으로 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인간적인 두려움은 뿌리치지 못한 모습이다. 인신공희 화소는 관의 폭정 앞에 희생되었던 당대 민(民)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다.

‘관탈민녀 화소’와 ‘세 가지 조건 화소’는 자료 [1]과 [2], [3]과 [4], 그리고 [7]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맹강녀를 후궁으로 들이려고 하는 진시황에게 맹강녀는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료 [2]에서만큼은 한 가지 조건만 요구한다. 그 요구 조건은 일관되게 남편의 장례를 엄숙한 예법으로 치러 달라는 것이다. 이는 《좌전》의 기량 처가 조문을 교외에서 받지 않고 예법을 지켜 자신의 집에서 받는 내용과 상통한다. 전사자인 남편의 죽음을 흉사가 아닌 열사(烈士)의 위치로 상송시키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진시황과 만조백관이 장례 행렬을 따르는 것은 물론 운구까지 요구한다. 더군다나 자료 [1]에서는 진시황이 조문 와서 ‘아버지’라고 세 번 부를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범한 요구는 문헌 전승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구비 설화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강한 전승력을 획득하고 전승 집단이 이 증거물에 대한 외경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승력이 강화된다.²⁴⁾ 이러한 구비 설화의 특성을 자료 [6]에서 읽을 수 있다. 맹강녀의 전생인 란향녀 이야기를 통해 만리장성이 생긴 ‘지명전설’을 만들어 냈다. 만리장성이 위치한 북경 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지명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만리장성은 열부가 아닌 효부의 효행으로 서사가 변형됐는데 그 특징이 있다. 효부로서의 맹강녀를 그린 자료는 이 한 편에 그친다.²⁵⁾ 자료 [2]를 보면 맹강녀로 변신한 용녀가 진시황의 후궁으로 들어가 항우를 낳는다. 맹강녀 설화의 서사적 포용성은 역사적 인물의 출생담을 담은 ‘인물전설’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기량 처 이야기에서 시작해 맹중자 이야기로 전승된 문헌 기록에서는 ‘이계’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구비 전승 자료 [1]과 [2], 그리고 [3]에서는 옥황상제와 용왕, 그리고 용궁 같은 이계와 그 세계의 인물이 등장한다. 또한 진시황이 성을 쌓거나 용궁을 위협하는 데 쓴 이계의 물건인 산편도 등장한다. 반면에 비록 한 편에 그친 화소이지만 이계와는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 자료 [1]에 등장하는데 바로 밀고자로 등장한 ‘주갈’이란 자이다. 장성에서 도주해 온 기량이 맹강녀와 결혼하는 날 ‘주갈’이란 자가 관에 밀고해 기량이 장성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한다. 당대의 다양한 인간 군상에도 관심을 가졌던 민(民)의 의식이 반영된 화소이다.

다음으로 ‘변신담 화소’를 자료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

24) 정상박, 앞의 논문, 30쪽.

25) 그러나 명청대를 지나며 나타난, 『소석맹강녀충렬정절현량보권(銷釋孟姜女忠烈貞節賢良寶卷)』같은 맹강녀보권 작품에는 충효, 정절, 현량이 세 가지 덕목이 맹강녀에게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유가 중심의 봉건주의 예법을 강요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우석, 앞의 논문)

에서는 용녀가 맹강녀로 변신하는데, 그 목적은 용궁을 위협하는 진시황의 산편을 훔쳐 돌아오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자료 [3]의 변신담은 맹강녀가 꽃으로 변해 남편을 죽인 진시황에게 찾아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진시황을 패륜으로 이끌어 마침내 황실의 문을 닫게 하고 객사하게 하는 복수담을 그린다. 변신 복수담은 비록 현실적인 화소는 아니지만 맹강녀의 복수가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민(民)의 분노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자료 [8]을 보면 나머지 자료들과 다른 구조가 눈에 띈다. 장성 축조 공사장에서 도주한 기량은 맹강녀의 집 후원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맹강녀를 엿본다. 하녀들에게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이때 맹강녀는 기량의 인물 됴됨이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간청해 혼인을 맺는다. 그런 뒤 맹강녀가 장성에서 곡을 하고 성벽을 무너트려 기량의 시신을 찾는다는 짙막한 이야기를 전승담처럼 부연하고 있다. 중요한 뒷부분을 이처럼 축약하고 맹강녀와 범희량의 혼사담이 강조된 점이 특이하다. 장성 축조, 도주, 규시(몰래 엿보기), 발각, 해명, 혼사 등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현실적이고도 극적인 요소들이 넘친다. 곧 맹강녀 설화는 사실적이고도 현실적인 서사 전개가 가능할 정도의 서사문학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투신’은 새로운 화소가 아니지만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 자료 여덟 편 중 일곱 편에서 맹강녀의 투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때의 투신은 전대(前代) 문헌 전승 속의 투신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전대의 투신은 울곧이 남편의 죽음에 동조한 죽음이었다. 커다란 동요도 복수도 계획도 없이 그저 순리처럼 따른 순절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투신은 비장한 계획 뒤의 죽음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맹강녀는 강물이나 바다에 투신하기 전 반드시 진시황에게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건이었다. 진시황은 맹강녀가 투신하고 나자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자료 [7]에서처럼 맹강

녀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한다. 그렇게 잘게 찢긴 살점이 병어라는 물고기가 되었다는 후일담까지 낳는다. 자료 [2]에서는 그녀가 빠져 죽은 바다를 진시황이 산편으로 후려쳐 용궁을 위협에 빠트릴 만큼 분노한다. 혹은 자료 [3]에서처럼 자신의 추한 행적을 뒤로 하고 황궁을 나섰다가 객사하기도 한다. 부당한 관(官)을 징계한 맹강녀의 죽음, 범부의 장례 행렬에 왕과 만조백관을 행차시키고, 관을 지게 하는 행위를 마친 뒤의 죽음은 여느 영웅 못지않은 비장함을 준다.

맹강녀 설화는 이처럼 다양한 화소의 변이와 등장으로 한층 생동하는 서사적 성격을 갖추었다. 그 주제는 열부의 비장한 죽음에 맞추어져 전승되었다. 비장함은 민(民)의 속내를 대변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감정의 분출구였다. 역사 이래 민(民)의 말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구비 전승물로 이입되어 당대의 현실을 담아냈다. 맹강녀 설화 역시 그러한 민중의 희원을 담아 끊임없이 구비 전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의 미학적 근간은 비장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화소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화소	《조옥집》 맹중자 전설	중국민간 고사집성 절강권 자료1	요녕권 자료 2	북건권 자료 3	하남권 자료 4	산서권 자료 5	북경권 자료 6	강소권 자료 7	호남권 자료 8
장성축조	○	○	○	○	○	○		○	○
도주	○	○			○				○
연못상봉	○	○			○	○			○
곡	○	○	○	○	○	○	○	○	
붕장성	○	○	○		○	○	○		
적혈	○			○	○	○			
적강		○			○		○		
인신공희		○						○	
관탈민녀		○	○	○	○			○	
세가지 조건		○	●	○	○			○	

지명전설							○		
인물전설			○						
이계		○	○	○					
밀고자		○							
변신담			○	○					
투신		○	○	○	○	○		○	
기타			한가지 조건	변신 복수담	신이 탄생	복중 혼사	효부 맹강녀	병어 후일담	혼사담

2) 문헌 전승의 절제미

맹강녀 설화의 원형인 기량 처 이야기가 최초로 관(官)의 기록으로 실린 때는 주나라 때이고, 그것이 다시 변천하여 하나의 서사문학적 골격을 갖춘 맹강녀 이야기로 탄생한 시기는 당나라 때이다. 양윤정은 이 당대(唐代)의 서사물이 남송대에 이르러 <맹강>이라는 정식 명사로 정형화되었고, 이후 명대에는 맹강녀 입묘(立廟) 운동이 일어날 만큼 번성하였던 사실을 들어 이 작품이 당대의 사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²⁶⁾하였다.

문학작품이 관(官)의 입장에서 기록될 경우, 맹강녀 설화의 문헌 전승에서 보듯 지배 계층의 정치이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기량 처 이야기가 실린 《좌전》이나 《예기》, 그리고 《맹자》등의 제사서(諸史書)는 백성들을 계몽하는 전통 도덕, 군신의 도리, 부부의 예와 같은 것을 기재함으로써 교화의 목적²⁷⁾을 다했다. 맹강녀 설화의 원형은 《좌전》양공(襄公) 23년(B.C.550)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제나라 군주가 진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거나라를 기습 공격하였다. (생략) 거나라 군주는 뇌물을 주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며, “그대들이 내게 맹세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네.” 하였다. 화주

26) 양윤정, 앞의 논문, 2쪽.

27) 양윤정, 위의 논문, 5쪽.

(華周)는 “재물을 탐하여 임금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당신도 싫어할 것입니다. 어두울 때 명령을 받고 해가 한 나절이 되기도 전에 이를 버린다면 어떻게 군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거나라 군주는 친히 복을 쳐, 거들을 정벌하고 기량을 사로잡았다. 그 뒤에 거나라 사람이 제나라에 화친을 맺었고, 제나라 군주는 귀환했다. 제나라 군주가 귀환하다가 도읍의 교외에서 기량의 부인을 만났다. 사람을 시켜 기량이 죽은 것에 대해 조문을 하게 하니, 그 부인은 조문 받기를 거절하면서, “제 남편에게 죄가 있다면 어찌 외람되게 군주의 조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죄가 없다면 선대로부터의 누추한 집이 저 아래쪽에 있으니 저는 교외에서 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제후는 기량의 집에 가서 조의를 표하였다.²⁸⁾

이를 주요 사건 단락으로 축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주나라의 제후국인 제(齊)의 장공이 기식과 화환을 시켜 거(莒)를 공격하다.
- (2) 거나라 왕이 재물로 기량을 매수해 동맹을 맺고자 하나 거절당하자 그를 죽이다.
- (3) 제의 장공이 교외에서 기량의 부인을 만나 사람을 시켜 조문하게 하다.
- (4) 기량의 부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 안에서 왕의 조문을 받다.

이 기록으로 보아 기식(기량)은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제(齊) 장공이 거(莒)를 습격할 때 전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장공이 사람을 시켜 교외에서 위로하고자 하니, 기량의 처가 이를 거절하고 예법에 맞춰 집 안에서 조문을 받게 된 일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 춘추시대 제나라 지방에서는 전사한 사람을 조문할 때에는 반드시 교외에서 했다. 타지에

28) 諸侯還自晉，不入，逐襄莒(생략) 莒子重賂之，使無死曰：請有盟 華周對曰：貪貨棄命 亦君所惡也，昏而受命，日未中而棄之，何以事君？ 莒子親鼓之，從而伐之獲杞梁 莒人行成 諸侯歸，萬杞梁之妻于郊，使吊之 辭曰：殖之有罪，何辱命焉？ 若免于罪，獲有先人之敝廬在，下妾不得于郊吊。 諸侯吊諸其室。

서의 전사는 흉사라고 여겨 교외에서 조문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결국 기량 처로부터 그 풍속이 바뀌게 되었으니, 기량 처의 이러한 예법 때문에 유향의 《열녀전》에 채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²⁹⁾도 타당성 있다.

전사한 남편의 주검 앞에 선 기량 처는 의연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하다. 무엇이 이토록 그녀의 감정적 분출을 막고 이성적 판단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하였는가. 우선 기량이 보여 준 행동을 보자. 거나라 왕이 기량을 재물로 매수하려고 하니 그는, “재물을 탐하여 임금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당신도 싫어할 것이다. 어두울 때 약속하고 해가 한나절도 되기 전에 어긴다면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³⁰⁾ 라고 제나라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기량 처의 의연했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기량의 충성심과 상응하는 것이다.

남편인 기량은 적국 왕의 회유를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군신 간의 도리를 다하였다. 이에 기량 처는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는 대신 남편의 주검을 흉사가 아닌 열사의 죽음으로 승화시키며 부부 간의 절의를 다하였다. 기량 처의 이와 같은 절제된 이성은 곧 당대의 만민(萬民)을 교화하고자 하는 상층의 의도에서 확보된 것이다. 군신의 도리와 부부 간의 절의는 봉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중핵이 된다. 주나라 황실과 제후국과의 결속을 도모하는 데 기량 부부가 보여 준 이와 같은 충과 열은 관민(官民)을 하나로 묶어 주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감정적 인물보다는 예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인물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절제미, 개아의 감정보다는 세계의 존립이 우선인 이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기량 처 이야기는 《좌전》을 거쳐 한 대의 《열녀전》으로 문헌 전승되었다. 서한(西漢) 말기 유향의 문헌 속으로 전승된 기량

29) 조숙자, 『고대 여인의 죽음과 그림자-기량의 아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대 출판부, 2002, 282-283쪽.

30) 貪貨棄命, 亦君所惡也, 昏而受命, 日未中而棄之, 何以事君.

처 이야기³¹⁾는 새로운 내용이 부가된 것이 특징이다. 즉, 기량 처의 곡(哭)과 장성의 붕괴(崩城), 그리고 치수 투신이라는 새로운 결말이 그것이다. 기량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기량 처가 곡을 하니 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은 그녀의 곡이 여느 범부의 통곡과 달리 신적(神的) 경지의 것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기량 처의 가곡(歌哭)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대개는 당시 민간의 가곡 풍속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본다. 가곡은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울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특히 무속 신앙에서 천신과 지지(地祇)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³²⁾

천지를 감동시켜 성을 무너트릴 만큼 곡을 하는 기량 처의 모습은 《좌전》의 기록과 달리 상당히 감정적이고도 격정적이다. 예법 승양을 강조하기 위해 다분히 이성적으로 그려졌던 기량 처의 모습이 이처럼 변천한 데에는 결론적으로 치수 투신이라는 당대의 명분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달리 말해 한대(漢代)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였다. 주나라를 지탱하였던 종족의 해체와 더불어 전국시대 이후 중국 사회는 하나의 전제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와 하나의 가장이 지배하는 가족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기본 축으로 구성되었다.³³⁾ 기량 처는 그와 같은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유향의 《열녀전》 <정순전·제기량처>에 실린 내용의 서사 단락을

31) ① 『설원(說苑)』 『입절』: 기량과 화주가 전투를 벌여 27명을 죽이고 전사하였는데,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소리 내어 울자 성이 기울고 그 귀통이가 무너졌다. 杞梁華周(舟)進鬪, 殺二十七人而死, 其妻聞之而哭, 城爲之隄, 隅爲之崩.

② 『설원』 『선설』: 옛날에 화주와 기량이 전쟁에 참여하여 죽었다. 그 아내가 그를 슬퍼하여 성을 향해 소리 내어 울었는데 성의 귀통이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다. 昔華周杞梁戰而死, 其妻悲之, 向城而哭, 隅爲之崩, 城爲之隄.

③ 『열녀전』 『정순전·제기량처』: 이 부분은 본문에서 기록하기로 한다.

32) 조숙자, 앞의 논문, 283쪽.

33) 정재서, 『열녀전의 여성 유형학』,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16쪽.

살피면 다음과 같다.

- (1) 기량이 거나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다.
- (2) 기량 처의 요구로 제나라 장공이 예를 갖춰 기량의 집에서 조문하다.
- (3) 기량 처가 기량의 시신을 성 아래 두고 열흘간 곡을 하니 성이 무너지다.
- (4) 위로는 아버지도 없고, 가운데로는 남편도 없고, 아래로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한 기량 처는 치수로 가 죽다.
- (5) 군자에 의해 칭송 받다.

(2)의 예법을 이행하고, (4)의 가부장적 논리에 포섭되어 마침내 치수에 투신하는 기량 처의 모습에서 당대 여성상의 실마리가 잡히고,³⁴⁾ (5)의 논리를 통해서는 유학을 내세운 위정자의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 《좌전》에서 보이는 기량 처의 이성적인 판단은 (3)의 격정적인 태도로 그 절제미를 잃는 듯하다. 그러나 치수 투신이라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의도적 장치일 뿐 그녀의 절제된 미덕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남편을 따라 순절한다는 점에서 더욱 절제미를 강조한 모양새를 갖춘다. 기량 처의 이러한 기록은 문헌 전승이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저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현된 것이다. 정절을 강조한 기량 처 이야기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맹강녀 설화로 자리 잡는다. 《조옥집(瑠玉集)》 <감응편>에 실린 맹중자 설화를 단락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량이 만리장성을 쌓다 도주하다.
- (2) 기량은 맹초의 후원 연못으로 숨어들어 목욕을 하던 초의 딸 중자를

34) 최진아는, 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진 여성들의 순절, 곧 왕이나 남편을 따라 죽는 순사의 원전이 유향의 『열녀전』에서 시작되었다고 파악하고, 중국과 조선의 각 시대별 『열녀전』을 연구하였다.(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53-100쪽 참조)

보다.

- (3) 기량은 중자와 부부의 예를 맺고 장성으로 돌아가지만 진시황이 죽어 성벽 아래 묻다.
- (4) 중자가 장성으로 찾아가 곡을 하니 성벽이 무너지며 백골이 쏟아진다.
- (5) 적혈로³⁵⁾ 기량의 뼈를 찾아 장사지내다.

진기한 것은 진시황의 출현과 함께 만리장성에 얽힌 그의 만행(蠻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1)에서는 민(民)이 도주를 할 만큼 장성 축조 부역이 고된 노동이었다는 사실이다. (3)에서는 민의 죽음을 예우로 대하지 않고 성벽에 묻어버리는 진시황의 만행을 그리고 있다. 전대(前代)의 문헌 전승 기록보다 훨씬 현실적인 서사로 전개되고 있다. 맹강녀는 (2)에서 보듯 자신의 몸을 맨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할 것을 다짐하는 절제된 사건의 인물이다. (4)에서는 적혈로 남편의 뼈를 찾지만, 구비 전승 기록에서처럼 진시황을 향해 복수를 계획할 만큼 능동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는 정절 의식을 표방하는 문헌 전승 기록물의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기량 처 이야기보다 분명 그 부가된 내용이나 구조적인 면,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변천을 하였으나, 여성의 열을 강조하는 주제적인 측면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열녀전》의 <제기량처>와 《조옥집》의 <맹중자>에 보이는 아내의 곡(哭)은 감정 노출보다는 절제된 여성상을 표현하는 장치로 다가온다. 《열녀전》의 곡은 치수 투신이라는 명제를 위한 것이고, 《조옥집》의 곡은 남편의 백골을 찾는 열부의 정절을 강조한다. 장성을 붕괴시킬 만큼 요란한 감정 노출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대의 정형화된 여성상을 구축하는 곡이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35) 피를 떨어트려 혈육을 분별하는 것. 피를 물에 떨어트려 서로 뭉쳐지거나, 뼈에 떨어트려 그 속으로 스며들면 혈육 간으로 여김.

조선조 사신들이 연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산해관 부근에 강녀묘(姜女廟)가 위치해 있었는데, 사행사들은 관행처럼 이 묘에 들러 한 구절씩이라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 이유는 유교적 덕목의 실천자로서의 열녀 맹강녀에 대한 관심이 충성심과 굳은 지조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들의 유교적 이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열녀에 대한 숭배를 시대적 풍조인양 유도한 것은 유교적 충절, 즉 당시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데 목적³⁶⁾이 있었다.

사건 서술 중심의 ‘원형 이야기’를 ‘변형 이야기’로 바꾸는 힘은 바로 인간이 본원적으로 지니는 모종의 결핍과 욕망에서 기인한다. 인간 정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원적 결핍은 대개 집요한 욕망의 양상으로 드러난다.³⁷⁾ 맹강녀 설화는 바로 이와 같은 당대인의 결핍과 욕망을 위장한 이면을 지닌 이야기이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운 절제된 미덕, 당대의 위정자는 그것을 여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관(官)은 설화의 전승력에 기대어 민(民)을 교도할 목적으로 맹강녀 설화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3. 맹강녀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징

1) 인물의 형상화와 곡(哭)의 연대

봉건 사회는 개인이 욕망하는 꿈이나 열망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존재와 존립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문헌 전승의 맹강녀 설화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이처럼 세습적이고도 숙명적인 계층 결정 때문에 고통 받는 현실 안에서 존재한다.

36) 김철, 앞의 논문, 183쪽-184쪽.

37) 장준영, 『이야기(故事)의 고금 변형을 통한 인문학적 소통의 가치 읽기』, 『중국연구』 64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5, 442쪽.

그 단적인 예가 범기량(혹은 만기량)인데, 그는 애초부터 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이다. 그래서 혼인을 마치기도 전에 장성을 축조하는 공사장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도주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힘없는 백성이다.

그에 반해 맹강녀는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선 신이한 인물이다. 곡(哭)의 경지가 얼마나 신이했던지 장성이 붕괴될 정도였다. 물론 《좌전》의 기량 처 이야기에서는 이와 같은 신이한 경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대(漢代) 유향의 《열녀전》이나 《설원》등에서 보이기 시작한 특이한 설정이다. 이에 대해 논자들은 기량 처가 잘 우는 부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본래의 ‘기량 처 이야기’와 ‘성이 무너진다’는 전설이 서로 결합해 ‘기량 처가 울어서 성이 무너졌다’는 전설이 형성³⁸⁾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

구비 전승 자료에서도 맹강녀의 신이한 곡은 중심 화소이다. 조속자는, 은대 이전부터 이미 특이한 소리(울음을 포함해서)를 이용해서 하늘에 기도하였음을 전제하고, 신을 향하여 자신의 소원을 비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곡을 내세웠으며, “잘 울었다”고 하는 것은 민간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³⁹⁾되었다고 했다. 맹강녀의 곡은 단순히 남편의 죽음에 따른 상실과 분노 때문에 폭발한 원성이 아니라, 위령제에서 불리는 곡과 같은 의미로 망자를 위로하고 산 자를 징계하는 신이성을 띤 것이다.

이와 같은 신이한 곡의 형태를 한국의 고대서사물인 <공무도하가>에서도 살필 수 있다. 백수광부가 물에 빠진 순간 그의 처가 부른 노래는 황사한 사람의 혼령을 위무하는 위령제에 쓰인 사설⁴⁰⁾과도 같아서 맹강녀의 곡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무도하가>의 배경 설화에 나타난 광부 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기량처

38) 조속자, 앞의 논문, 284-285쪽.

39) 조속자, 위의 논문, 285쪽.

40) 김태곤,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84, 293쪽.

가>배경 설화에 주목한 논의⁴¹⁾가 있어서 주목되는데, 이 두 문헌이 동일하게 《금조》(채옹, 133-192)와 《고금주》(최표, 290-306)에 실려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연구였다. 기량 처의 곡(哭)이 일정한 선율이 있는 처연한 가(歌) 형태라는 점에서 <공무도하가>의 가(歌)와 일맥상통한다고 본 견해는 두 서사문학의 교섭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고무적인 성찰이다.

좀 더 후대의 《삼국사기》권48 <열전>8 <도미전>에 나오는 도미 처의 곡도 이러한 신이성을 띤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개로왕의 난행을 피해 강가로 도망쳐 왔으나 그 물을 건널 길이 없자 도미 처가 하늘을 향해 곡을 하니 홀연히 배 한 척이 나타난다. 맹강녀의 곡(哭)처럼 천지를 감응시킨 신이한 곡이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곡이 끝난 뒤 맹강녀는 바닷가로 가 투신을 하였고, 도미 처는 남편을 만난다는 점이 다르다. 여성인물의 곡이 사건 전개的重要 화소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부연하자면 맹강녀의 곡은 곧 이 설화의 신이성을 드러내는 중심 화소인데, 문헌 전승 자료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러한 경지에 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구비 전승 자료에서는 갖가지 화소들이 나타나 신이한 인물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예컨대 자료 [1]에서는 맹강녀가 적강녀로 등장함으로써 단락 (8)의 곡(哭)과 단락 (9)의 붕장성(崩長城)이 조합된다. 단락 (3)을 보면 맹강녀는 자신의 배필이 ‘온 몸이 하얀 사람’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이 역시 적강녀라는 배경에서 개연성이 선다. 자료 [5]에서도 맹강녀의 비범한 예감이 나타나는데, 환영처럼 나타난 맹장군(범기량)을 보곤 그가 이미 사자(死者)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장성으로 떠난다. 이러한 배경 뒤에 나타나는 맹강녀의 곡은 마땅히 신이한 경지일 수밖에 없다.⁴²⁾

41) 이영태,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광부 처의 행동』, 『민족문화사연구』 33집,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110-128쪽.

42) 조숙자는, 현재까지도 맹강녀의 신성한 영역이 이어져 호남 상덕의 한국(漢劇)

그러나 맹강녀가 하늘과 천지를 감응시켜 장성을 붕괴시키는 신이한 존재로서만 회자되었다면 비현실적인 요소로 인해 그 감동이 반감했을 것이다. 맹강녀 설화는 현실적 고통을 대리 해소하고자 하는 민(民)의 희구가 담긴 서사문학이다. 그래서 맹강녀는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성격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었다. 맹강녀의 이러한 성격은 그녀의 출생 부분과 진시황의 권력 앞에 맞서는 의연한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맹강녀는 적강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거개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여느 사람처럼 혼담이 오가고 배필인 범기량을 만나 혼인하는 인간적인 길을 걷는다.

다만 특이하게도 자료 [1]과 [4]에서는 박의 씨 속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어린 여자아이 몸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녀에게 둘 혹은 세 명의 부모가 나선다. 자료 [1]에서는 맹 씨와 강 씨 노인이 서로 부모가 되려고 욕심각심하다 자식이 없는 맹 씨 노인이 맹강녀를 키운다. 이름은 맹 씨와 강 씨 성을 따서 맹강녀이다. 자료 [4]에서도 맹강녀가 박 속에서 튀어나오자 맹 씨와 강 씨 노인은 아이를 잘 키워 줄 허 씨 성을 가진 새 어머니를 들이고 이름도 허맹강이라 짓는다. 서로 앞 다투어 부모가 되어 줄 만큼 맹강녀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인간적인 인물이었다.

맹강녀가 신이성뿐만 아니라 현실적 인간이라는 측면은 무엇보다도 세 가지 조건 화소에서 잘 드러난다. 자료 [1]과 [2], 그리고 [3]과 [4], 또한 [7]에서 보면 곡을 하는 맹강녀의 미색에 빠진 진시황이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맹강녀는 그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같이 남편 범기량의 주검을 예법에 맞게 장사지내되 진시황과 만조백관이 조문을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대(前代)의 기록에서처럼 맹강녀의 곡으로 장성이 무너지는 것만으론 현

에서 온갖 병을 없애 주고 구원의 별을 내려 주는 인물로 맹강녀가 등장하며, 강소 남통의 동자희(童子戲)에서도 말을 탄 여신 오방현량을 부르는 가운데 맹강녀가 그 다섯 신 중 하나인 북방현량으로 나타남을 밝혔다.(앞의 논문, 293쪽)

실적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래서 민(民)은 자신들의 부당한 불의를 대신해 맞서 줄 인물로 맹강녀를 선택했고, 그녀의 용기와 의연함을 서사문학 속에서 성장시켰다.

이러한 성장 문학적 특질은 한국의 작품에서도 그 단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수광부의 처와 도미 처 같은 한국적 서사 주인공을 탄생시킨 지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맹강녀는 물론 백수광부의 처와 도미의 처는 처연하고도 신이한 곡(哭)이 연대해 형상화된 인물이란 점이다.

인물의 형상화는 그를 에워싼 세계와 우주 자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행위, 바깥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솔직하고도 진솔한 ‘울음’을 통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2) 연희적 서사 공간의 확대

맹강녀 설화는 맹강녀의 신성함과 위정자들에 대항한 의연한 절개로 끊임없이 추앙 받아 왔다. 그래서 현재도 향촌의 제사 연극인 나희(儼戲)에서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재앙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안휘성 지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부기(尋夫記)>나 <맹강녀심부기>, 또는 <맹강녀>등의 제목으로 공연되고 있다.⁴³⁾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연희적 서사 무대의 특징이다.

구비 전승 자료에 보면 맹강녀 설화의 주요 공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맹강녀의 집 후원 연못과 장성, 그리고 바닷가(혹은 강) 등이다. 후원 연못은 가택의 담장 안에 있어 장성이나 바닷가처럼 투명한 시각을 주지는 못하는 공간이다. 이 세 가지 배경의 특징은 점층

43) 조숙자, 앞의 논문, 203쪽; 양윤정, 앞의 논문 2쪽 참조(남송에 이르러 맹강은 정식명사로 정형되었고, 남희(南戲)와 북극(北劇)에서는 무대의 입체적 연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희극(戲劇)의 감염력은 강하여 명대 중엽 각 지역에서 맹강녀 입묘운동이 일어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적인 확장을 하는 공간이란 사실이다. 가택 안의 연못에서 장성으로 확장되고, 다시 주변 환경이 트인 바닷가로 이어진다. 그 연회적 무대가 보다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즈음해서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의 제의적 실체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비 전승 자료 안의 맹강녀는 투신을 하는데, 이는 항해형 인신공희 설화의 시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항해형 인신공희 설화는 바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주로 항해의 도중에 섬에 표착한 집단이 풍랑 등의 재해로 위기에 처하고, 신의 계시로 집단의 일원을 제물로 바쳐 전멸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서사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⁴⁴⁾는 점에서 집단적 제의, 집단적 연회가 이루어졌던 무대의 설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공간의 확대는 맹강녀 설화의 배경이 민(民)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일상적인 곳임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선계의 별궁이거나 지하세계, 혹은 용궁세계의 거처가 주요 서사 무대가 되었다면 애초 맹강녀 설화에 담긴 민중의 현실적 비원은 비현실성을 띠게 되고 그만큼 감동이 덜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서사 무대는 극적 긴장감의 조성과 긴밀히 연결되었는데, 각각의 무대마다 극적 사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 공간의 점층적 확대로 인해 민(民)은 그 극적 긴장감을 더욱 밀도 있게 공유할 수 있었다. 후원 연못은 맹강녀와 범희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덟 편의 자료 가운데 다섯 편의 자료에서 후원 연못 무대가 나올 만큼 비중이 크다. 이곳은 가장 인간적인 추구, 곧 선남선녀가 만나 사랑을 키우고 결혼을 기약하는 평온하고 안정된 공간이다. 물론 자료 [6]에서는 사자(死者)인 범희량과 맹강녀가 대면하는 곳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곳은 복중 혼사로 태어나 가연을 맺은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이 담겨 있는 장소이다. 후원 연못은 가택이라는 안온한 현실이 관(官)의 부당한 외압으로 비극적 현장

44) 김영호, 『항해형 인신공희 설화 연구』, 『어문학』 129집, 한국어문화회, 2015, 117쪽.

으로 변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특히 자료 [8]은 이러한 연희적 서사 공간의 특성이 강조되어 있다. 장성에서 도주한 범기량과 맹강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혼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만으로 서사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의 곡장성(哭長城)과 바닷가 투신은 짙막하게 전승담 식으로 부연한다. 계수나무 위에 숨어 목욕하는 맹강녀를 엿보는 기량의 감정 상태는 물론 시녀들이 범기량을 끌어내려 희롱하는 부분, 맹강녀가 범기량의 인물 됴됨이를 살피며 그와의 혼사를 타진하는 속마음까지 희곡적 무대에서 가능한 감정과 동선으로 짜여 있다.

이 후원 연못은 극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 공간이기도 하다. 두 남녀가 만나는 첫 장면을 보면 범희량이 연못물에 빠진다는지(자료1), 맹강녀가 연못물에 손을 씻고 있다는지(자료4),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자료8) 자료 [1]은 결말 부분에 이르러 맹강녀가 범희량의 유골을 안고 바다로 투신하는(자료5) 것과 일치한다. 자료 [4]와 [8] 역시 맹강녀의 투신 장면과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연못물은 등장인물의 이합이 드러나는 서사 공간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무왕>조를 보면 서사 공간으로 후원 연못 배경이 등장한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라는 기록에서 가택 내 연못이 서동 어머니와 용왕의 기이한 인연이 맺어진 공간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비극적 결말의 암시는 나타나지 않지만,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맹강녀 설화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주요 공간인 장성은 말 그대로 관(官)의 폭정과 불의가 상징화된 곳으로, 가장 중요한 서사 공간이라고 할 것이다. 민간인에게 성벽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 혹은 그것의 견고함과 중압감을 뜻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 재난, 혹은 사악한 귀신에 의하여 저

질러진 재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통치자의 폭정이라고 여겼다. 통치자의 폭정은 대개 혹독하고 가혹한 세금 징수나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부역 활동⁴⁵⁾으로 표현되었다. 범희량이 장성 부역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통스러운 장성 축조 부역과 그 부역을 강행한 관에 대한 민중의 원성은 마침내 진시황의 반인륜적이고도 부도덕한 행실을 드러내는 서사 공간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료 [1]을 보면 진시황이 장성을 축조하려는 의도가 패륜적인 이유 때문이란 사실을 부각한다. 즉 부왕의 108 후궁 중 ‘애비’라는 후궁을 자신의 비로 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애비는 패륜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하나 진시황은 옥황상제를 억박질러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였으며, 그 해를 가릴 장성을 쌓는 데 젊은 남자 11002명을 생매장하려고 하였다. 이에 범희량이 잡혀 와 11002명을 대신해 장성 아래 묻힌다. 자료 [7]에서는 장성 축조 중에 그 붕괴를 막기 위해 1만 명의 산 사람을 묻고 제사 지내기로 한다. 이때 만 씨 성을 가진 만희량이 잡혀 와 장성에 묻힌다. 이처럼 장성은 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신공희 공간이었다.

자료 [3]은 두 번의 곡(哭)을 반복해 진시황의 불의와 반인륜적인 면을 부각한 공간이다. 첫 번째 곡은 맹강녀가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곡은 특이하게도 진시황 모후의 것이다. 갑자기 젊음을 찾은 모후의 미색에 빠져 진시황이 자신의 어미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패륜을 저지른다. 모후가 황궁 성벽이 태양을 가리지 않고서는 어미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고 격노한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아 태양을 가리려고 하니 이에 모후가 곡을 하고 성이 무너진다. 진시황의 모후까지 등장시켜 관(官)의 부정을 상징할 만큼 장성 공간은 민(民)의 울분이 극대화된 무대이다.

이와 관련한 한국적 서사 무대는 <도미전>⁴⁶⁾에서 살필 수 있다. 도미

45) 조숙자, 앞의 논문, 286쪽.

처가 처했던 시대 상황은 맹강녀가 처했던 시대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삼국사기》권제25 《백제본기》3 <개로왕>조를 보면, 15년 겨울 10월에 “쌍현성을 수축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산성의 병졸들을 나누어 수비하다”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의 정황을 외부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18년 개로왕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 위나라에 구원병을 청했을 때 위나라 현조(顯祖)가 보낸 조서에 이르기를, ‘그대는 선대 임금의 옛 원수를 갚는다고 핑계하여 백성들을 편케 하는 큰 덕을 버리고 있으며, 전쟁이 여러 해에 걸치고 환난이 변경에 맺혀 신포서⁴⁷⁾의 정성을 겸하게 하였으며, 나라는 초(楚)와 월(越)처럼 위급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여 당시 백제 상황을 소상히 밝힌다. 군주의 덕 없음과 축성, 전란으로 인한 민(民)의 고통 등은 맹강녀 설화의 시대적 배경과 다르지 않다.

관(官)에 맞서는 민녀(民녀)의 절행은 부부의 예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인의 현실을 이입시켜 민의 속내를 풀어 주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맹강녀가 곡으로 장성 붕괴를 일으켜 관을 징치했듯, 도미 처 역시 신이한 곡으로 개로왕의 난행을 고발했다. 그녀의 곡은 천지를 감응시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배를 불렀고, 마침내는 천성

46) 채록된 ‘도미 설화’는 경남 진해와 충남 보령이라는 두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진해 지역의 도미 설화가 대체로 《삼국사기》의 내용을 축약한 형태로 전개된 반면, 보령 지역의 도미 설화는 주변 지형지물과 연관된 여러 증거물을 남기고 있다. 특히 오천면 교성리의 작은 항구가 ‘도미항’으로 명명되고, 도미항 건너편의 빙도라는 섬은 도미부인이 태어난 ‘미인도’로 부른다. 가장 특징적인 변이 부분은 도미의 직업이 ‘목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왕이나 권력자가 목수인 도미에게 마구간과 같이 특정한 건물을 짓게 하고, 그 틈에 부인을 취하려 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제때 지어지지 못한 것을 핑계로 도미를 처벌하고 부인을 겁탈하려 한다. 이는 도미의 직업에 따라 서사가 변이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정제호, 『삼국사기 소재 도미설화의 구비 전승과 변이에 대한 연구-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5, 275-280쪽 참조.)

47) 申包胥: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나라가 오나라에 점령되자 진나라로 가서 7주야를 울며 구원병을 요청.

도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다. 이러한 곡의 신이성은 서사 공간의 독창성을 구현하는 기능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서사 공간인 바다는 맹강녀의 투신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시야가 가장 넓게 트인 공간이다. 너른 대해로 홀연히 뛰어드는 맹강녀의 모습은 그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비장미를 더한다. 그녀의 마지막 순절이 폐쇄된 공간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비장미는 덜했을 것이다. 광대한 자연 앞에서 치러지는 순사는 인간적 연민을 자아내기에 적절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관의 횡포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 될 때 바다라는 외경스러운 자연과 합일되어 비장한 미의식마저 들게 한다.

<공무도하가>배경 설화에 등장하는 광인부처(狂人夫妻)의 비극은 명실 공히 비극 그 자체요, 따라서 희곡이 되는⁴⁸⁾ 것으로 볼 때, 백수광부의 처가 투신하는 서사 공간과 맹강녀가 투신하는 서사 공간은 당대 민(民)이 추구하던 비장미가 강조된 곳이다. 연회적 서사 공간의 확대는 《삼국유사》에 이르러 용과 관련한 바다가 주요 서사 무대로 등장하는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거타지 설화’는 불의와 운명해 항거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극대화한다. 후대의 <최척전>같은 고전소설은 등장인물의 인연을 20여 년에 걸쳐 떠돌게 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만강홍>같은 희곡 작품에서는 극중 인물들의 표착 공간으로 바다가 등장⁴⁹⁾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공간의 확대는 광대한 바다와 작고 미약한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맹강녀 설화가 구전되는 가운데 민(民)은 자신들의 속내를 한층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너른 서사 무대를 갈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이 바다였다. 이는 곧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싶어 했던 민(民)의 비원이 담긴 개방된 공간이다. 문헌 기록에서는 보

48) 사재동, 『한국희곡문학사의 연구Ⅱ』, 중앙인문사, 2000, 16쪽.

49) 경일남, 『만강홍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고전희곡연구』 2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1, 127쪽.

이지 않던 현실에 대한 민(民)의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침내 사방이 트인 바다라는 서사 공간을 구현한 것이다.

3) 낭만적 세계관의 해원의식

맹강녀와 기량의 애정 이야기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한 외압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고 마침내는 두 남녀 주인공의 죽음이 현실로 되면서 더 이상 보편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맹강녀는 죽음에 관해 초연한 여인이다. 곡으로 천지를 감응시키고 장성을 붕괴시킬 만큼 그녀는 이미 지상적 삶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인물이다. 범희량이 인신공회 재물로 거론되자 이를 두려워 해 도주한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맹강녀의 곡은 장성을 붕괴시켜 남편의 시신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제공한 위정자를 징치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있었다. 그래서 그 뒤에 행해지는 그녀의 초연한 죽음(투신)은 타당성을 얻으며 비장함을 안겨 준다.

맹강녀 설화의 이와 같은 낭만성은 그녀의 죽음에 함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맹강녀의 투신은 단순히 육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열녀화를 주도하던 관의 개입으로 그녀의 죽음이 관습에 따른 순절이란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구비 전승 자료에서 맹강녀가 생사의 경계에서 보여 주는 초연함은 분명 비장한 낭만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자료 [2]를 보면 맹강녀의 전생인 란향녀가 시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떠난 길에 아무 미련 없이 백마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나온다. 백마를 통해 이미 시어머니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란향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백마와 함께 몸을 던진다.

이처럼 초연한 의식은 범희량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주는 해원의식으로 나타난다. 범희량은 두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료 [1]과

[7]에서는 인신공희 대상으로, 자료 [8]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서는 부역을 피해 도주한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힘든 부역으로 지쳐 죽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인신공희 대상으로 죽게 된 경우에는 일만 명을 대신한 것이고, 나머지 자료에서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으로 일어난 것이다. 어찌 되었건 그 죽음은 하나같이 장성과 연결되어 있고, 맹강녀의 곡으로 그 장성이 무너진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곡을 통한 장성의 붕괴 안에서 비명에 죽은 범희량의 해원의식이 치러진다.

이와 같은 해원의식이 잘 드러나는 곳은 자료 [5]이다. 남편이 사자(死者)가 되었음을 알고 검은 옷을 준비해 장성으로 떠나는 맹강녀의 모습이 보인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행동인 동시에 남편의 혼을 위무하러 떠나는 숙연한 모습이다. 뒤이어 이어지는 그녀의 곡과 장성 붕괴는 그래서 더더욱 비장미를 획득한다.

맹강녀의 죽음은 현실 세계의 비극을 끊고 또 다른 세계로의 이입을 그린다. 붕장성이 남편의 해원의식을 치른 결과였다면, 맹강녀의 바다 투신은 이 설화에 의탁한 민(民)의 원성을 풀어 주는 해원의식인 셈이다. 관(官)에 대해 것처럼 의연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민의 낭만적 세계관 속에 살아 있는 인물이다. 그녀를 통해 당대인의 울분을 토로하고 관을 징계하고자 곡장성(哭長城), 붕장성(崩長城)이라는 낭만적 세계를 창조해 낸 것이다.

이상으로 맹강녀 설화가 민(民)의 가슴 속에서 면면히 유전할 수 있었던 서사문학적 특질을 살펴보았다. 부당한 외압에 항거하는 민(民)의 호소가 관과 민의 대결 구도를 장치했으며,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였던 맹강녀의 삶이 조명되었다. 또한 연회적 서사 공간의 확장으로 맹강녀 이야기가 입체적이고도 실사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民)의 억눌린 속내를 풀어주는 해원의식을 통해 고금을 넘나드는 주제의식을 선보였다. 타 문학과와의 교섭 양상을 가능하게 한 이러

한 특질들 때문에 맹강녀 설화는 그 서사문학적 가치가 높다.

4. 결론

이 논문은 맹강녀 설화가 관(官)과 민(民)을 아우르며 2000여 년 간 유전해 올 수 있었던 서사문학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문헌 전승 기록과 구비 전승 기록의 차이점을 살펴, 전승집단의 의식에 따라 캐릭터의 변이와 새로운 서사구조의 등장, 보다 명징해진 주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적 교섭 양상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살폈다.

먼저Ⅱ장에서는 맹강녀 설화가 최초로 관의 기록으로 실린 《좌전》 기록을 살펴, 그것이 민을 교화하고 계몽하는 목적이었음을 이해하였다. 기량 처 이야기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맹강녀 설화로 자리 잡는다. 새로운 화소가 추가되는데 바로 기량과 맹강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연못 상봉이 그것이다. 또 하나 새롭게 등장한 화소는 맹강녀가 적혈로 남편의 뼈를 찾는 대목이다. 새로운 화소와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었지만 구비 전승 자료에 비해 여전히 절제된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운 절제된 미덕, 당대의 위정치는 그것을 여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당대 이후 다채롭게 변모한 구비 전승 자료 가운데 8편을 채택해 민이 추구하던 서사적 비장미에 대해 살폈다. 문헌 기록에서의 결말 부분은 ‘적혈’ 화소로 끝난다. 그런데 민의 전승에서는 적강(신이한 탄생 포함), 인신공희, 관탈민녀, 세 가지 조건, 지명전설, 인명전설, 이계, 밀고자, 변신담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화소들은 인물들의 절제된 이정보다는 솔직한 감정 상태를 살리고, 짜임새를 갖춘 서사 구조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비장한 주제의식을 발현한다.

Ⅲ장에서는 맹강녀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질을 살펴 그 가치를 가늠해 보았다. 맹강녀의 신이성이 형상화되는 데 그녀의 곡(哭)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지목했다. 그녀의 신이성은 곡에서 기인하며, 그 능력은 곧 망자를 위안하고 산 자를 징계하는 장치로 쓰였다. 이러한 곡의 형태가 한국의 고대시가 <공무도하가>와 《삼국사기》, <도미전>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였다.

맹강녀 설화의 주요 공간 배경은 크게 세 가지, 가택의 후원 연못에서 장성으로, 다시 바다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는 연희적 서사 공간의 확대를 살필 수 있는 실마리이다. 이 공간들의 극대화된 너비로 인해 극적 긴장감을 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후원 연못은 두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서사무대로, 장성은 남편의 주검을 위안하고 위정자에 대한 징치를 하는 서사무대로, 바다는 설화 속 등장인물은 물론 민의 해원의식이 치러지는 서사공간으로 접근하였다.

후원 연못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적 서사무대로 《삼국유사》 <무왕>조를 살폈고, 장성 서사무대로는 《삼국사기》 <개로왕>조의 축성 상황과 전란 상황이 맹강녀 설화의 시대상황과 근접함을 고구하였다. 바다가 배경인 서사 무대로 <공무도하가>와 《삼국유사》에 산재한 바다에 관한 기록들, 고전소설 <최척전>과 희곡 작품 <만강홍>을 예로 들었다. 서사무대의 개방성은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자 했던 민의 비원이 담긴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맹강녀 설화는 그녀의 죽음으로 비장미를 더한다. 맹강녀의 바다 투신은 이 설화에 의탁한 민의 원성을 풀어 주는 해원의식인 셈이다. 민은, 자신들의 현실적 울분을 풀어 준 그녀를 다시 낭만적 죽음 속으로 돌려보낸다. 한국에서는 <춘향전>이 현실적 열부 형을 만들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을 향한 의지를 지키는 모습에서 여전히 맹강녀와 도미 처의 맥을 잇는 낭만적 세계관 속의 인물임을 살폈다.

이상으로 민(民)의 가슴 속에 면면히 유전될 수 있었던 맹강녀 설화의

특질을 살피 그 서사문학적 가치에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구비 전승 자료가 8편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상세한 비교 연구는 전개되지 못한 부분은 후일의 연구를 통해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구비 전승 자료들과 각 지역의 지리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살핀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의 구비 전승 자료와 한국의 구비 전승 자료의 보다 개괄적 논의 역시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삼국사기』
『중국민간고사집성』, 중국민간문학집성전국편집위원회, 중국 ISBN 중심
출판
- 강진옥, 『삼국 열녀전승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한국서사문학
사의 연구Ⅱ』, 중앙문화사, 1995.
- 경일남, 『만강홍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고전희곡연구』 2집, 한국고
전희곡학회, 2001, 245쪽-265쪽.
- 고힐강, 『맹강녀 이야기의 변천(孟姜女故事的轉變)』, 『맹강녀고사연구집
(孟姜女故事研究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4.
- 김우석, 『보권에 대한 연구:소극적 대안으로서의 이단과 미신, 도피적 위
안과 마취적 오락의 문학』, 『중국문학』 3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197-212쪽.
- 김철, 『‘연행록’ 중의 맹강녀 전설 기록 양상 소고』, 『민족문화연구』6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57-209쪽.
- 김태곤,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84.
- 사재동, 『공무도하 전승의 희곡적 전개』 『한국희곡문학사의 연구Ⅱ』, 중
양인문사, 2000.
- 손정인, 『도미전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353-380쪽.
- 양윤정, 『맹강녀설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유강하, 『21세기의 새로운 변신 이야기: 『벽노집』 속이 변형 이미지와
신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54집, 중국어
문학연구회, 2009, 465-490쪽.

- 유우선, 「심청전의 근원설화와 배경사상」, 『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 11집,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189-203쪽.
- 이영태,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광부 처의 행동」, 『민족문화사연구』 33집,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110쪽-128쪽.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정상박, 「도미부부 설화 전승고」, 『국어국문학』 8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15-30쪽.
- 정재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 정재서, 「열녀전(列女傳)의 여성 유형학」,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대출판부, 2003.
- 정제호, 「삼국사기 소재 도미설화의 구비 전승과 변이에 대한 연구-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5, 271-303쪽.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 조숙자, 「고대 여인의 죽음과 그 그림자-기량의 아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9집, 중국어문학회, 2001, 473-509쪽.
-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최운식,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2, 151쪽-170쪽.
- _____, 「인신공희설화 연구」, 『한국민속학보』 10집, 한국민속학회, 1999, 167-207쪽.
- 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대출판부, 2002.

허윤정, 『맹강녀보권연구(孟姜女寶卷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황인덕, 「에밀레종 전설의 근원과 전래」, 『어문연구』 56집, 어문연구학회, 2008, 289-322쪽.

<Abstract>

Restoration of The Value of Narrative Literature of Maengkangnyeo Tale

Kim, Hyun-hwa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literature Maengkangnyeo tale to know how the tale has been able to be handed down from both the ruling class and the subjects for about two thousand year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of Maengkangnyeo tale in literately and orally transmitted records and found out that the characters of the tale changed; narrative structure appeared; and the subject consciousness became more solid depending on the awareness of a transmission group. In the meantime, this paper looked into the aspect of negotiation between Maengkangnyeo tale and Korean narrative literature.

The story of Kiryang's wife, which had originated from "Jwajeon", was written to reform and enlighten the subjects and settled down as Maengkangnyeo tale in Dang Dynasty. Although a new material was added such as 'finding her husband's bones and red blood by change at an pond, the virtue of moderation based on rationality was more emphasized than emotion. The politicians during Dangdae Dynasty tried to realize it through a woman.

This study chose 8 records of orally transmitted data after Dang Dynasty to examine the narrative tragic beauty that the subjects had

pursued. The records transmitted from the subjects have such newly added motives to the story as reincarnation, a proposal of human sacrifice, the event of taking away a subject woman, three conditions, legend for the name of a region, legend for the name of a person, ideal world, informer and a story of an animal turning into a human. These motives manifested the tragic thematic consciousness of risking a life to pursue a valuable life through a well-organized narrative structure where the candid emotions of the characters stand out more than moderate rationality.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narrative literature of Maengkangnyeo tale is that the process of characterization is made in concert with her kok. It was understood that the types of the kok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classical poems (Kongmudohaga and Domijeon), too.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openness of narrative space for an event. The major spatial background of Maengkangnyeo tale consists three at large; it moves from a pond in the backyard of the house to a long castle and to the sea again. The pond at the back garden is the narrative space for the main couple characters who meet and separate from each other there while the long castle is the narrative space where she condoles her husband's death and castigates the politicians. And the sea is space for narration of the ritual of revenge by the subjects as well as the main character.

This study found some similarity between Maengkangnyeo tale and other Korean classic literature in terms of narrative stage: "Samkukyusa" and "MuWang" use a pond at backyard as the space for Korea-styled narration while "Samkuksaki" and "Kaerowang" use a long castle for their narrative stage regarding building a castle and

war situation. And “Kongmudohaga” and “Samkukyusa” use the sea as narrative space and such narrative stage is found in the classic novel “Choecheokjeon” and play “Mankanghong”. The openness of narrative space is the result from the subjects’ tragic wish that they wanted to reveal the reality nakedly.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e rite of revenging, which is the view of romantic world. Tragic beauty is added to Maengkangnyeo tale as she dies. Maengkangnyeo throwing herself into the sea is a ritual of consoling the resentment of the objects. The subjects send her who solves the injustice they suffer from back to the world of romantic death. And the women appearing after then are realistically virtuous woman in type, but they are characters, in romantic world, succeeding to the legacy of Maengkangnyeo’s Domi’s wife.

Key Words : Maengkangnyeo, Kiryang, Chinese legend,
Narrative Literature, narrative space,
literately transmitted, orally transmitted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4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